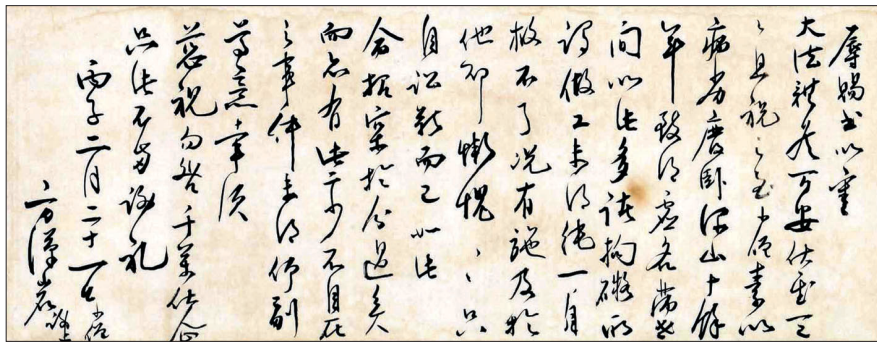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5>

### “자신도 구제 못하는데 어찌 남을...”



한암 선사가 진진응 화상에게 보낸 답서

#### 진진응(陳震應) 화상께 보낸 답서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법체(法體) 만안(萬安)하시다고 하시니 삼가 위안이 됩니다. 빌어마지않습니다.

소승은 평소 병약(病弱)한 몸으로 깊은 산속(오대산)에 들어와 10여 년 동안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오히려 허명(虛名)을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허명 때문에 구애(拘礙)되는 일이 많습니...

스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실로 과분한 일입니다만 또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사소한 일이 있어 스님의 뜻에 우러러 부응하지 못합니다. 부디 자애로운 마음으로 깊이 헤아려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자애롭게 여겨 허물하지 마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만 줄이우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자(1936년) 2월 21일 소승(小僧) 방한암(方寒岩)은 답장을 올립니다.

이 편지는 진진응(陳震應, 1873~1942) 화상에게 보낸 답서로 1936년 2월 21일에 보낸 것이다.

진진응 스님은 화엄사 출신이다. 구례 광의면 출신으로 15세에 화엄사로 입산하여 1928년 7월 55세 때에는 화엄사 주지를 역임했다. 화엄사, 선암사, 쌍계사 등 전라남도와 경남 일대의 대표적인 강백이었다.

또 1910년에는 이회광 스님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과 합병하려고 하자 만해 한용운, 석전 박한영 스님과 함께 저지했던 스님이기도 하다.

한암선사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진진응 스님은 지리산 쌍계사 강백으로 있었다.

내용은 진진응 스님이 한암선사를 초청한 뜻이다. 아마 법문을 해 달라고 청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초청에 부응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순일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찌 타인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저 자책하고 탄식할 뿐입니다.”라는 말로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다.

편지 가운데 한암선사가 “날이 갈수록 허명(虛名)이 세간에 가득하여 이로 인해 구애(拘礙)되는 바가 많다”는 말은 겸양

#### 진진응 화상의 청법에 대한 답신

청법에 응하지 못함 양해부탁

행사·법회 참석 한 번도 없어

중정 추대되고도 추대식 참석 거절

진진응화상...한국불교 지킨 대강백

지사(謙讓之辭)인데, 이 당시 한암선사는 만공 스님과 함께 대표적인 선승이었다. 그래서 법문을 요청하는 곳이 많았는데,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차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타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행사나 법회에 참석하시러 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는 1941년 6월 처음으로 조계종이 창종되어 중정에 추대되어도 서울에 가지 않았다. 서울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정을 수락하였다.

진진응 스님은 한암선사 보다는 3살 위였다. 그리고 한암선사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61세 때였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음률에 불법 실어 재소자들 상처 씻겨준 불음 포교 30년

## 불음가수 김무한

섬세한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흘러나오는 지금 어디에도 마음의 님을 찾아 열리고 설기었던 인연타래 한올한올 풀다 겨워 뒤야보니 머문자리 무상초 홀로피어 ...

형상 없는 무덤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불암불암 개골가락 절로 흥겨우니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살다 나는 가리

·‘무상초’ 중

불음(佛音) 가수 김무한씨가 1990년대 처음 만든 노래다. 노래하는 것이 좋았던 그가 불법을 접하고 무상초 등을 부르자 사찰 공연에서 그를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랫말에 감화를 받은 스님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노래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30년간 시간 날 때마다 그는 교도소에서 무료로 노래하게 됐고, 이후 남부 교도소 합창단 지도자까지 맡게 됐다. 여전히 한 달에 한번 그는 40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고 있다.

재소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몰라 헤매던 자신과 다를 바 없었다. 무지한만큼 위험한 삶이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조그만 이정표가 되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노래로 그들을 깨치게 하고 싶었다.

“덧없는 세월의 굴레를 쓰고 무디운 수레바퀴만 굴리고 있네/ 내 모습을 부끄러워... 거울에 비친 내 그림자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등의 노랫말을 따라하며 재소자들은 회한의 감정에 휩싸인다. ‘부모은중경’을 부를 때는 부모님 생각에 많은 재소자들이 운다.

자연히 그들과 불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본디 마음의 차이에 대해, 화의 덧없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음악에 기대 진지하게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더없이 후련했을 터다.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은 그에게 그간 고마웠다면 손



전국 어디든 부르면서 그는 노래하러 간다. 1999년 만해축전 초청공연.



군법당에서 노래포교 하는 모습.



여주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해 명상을 가르치고 불음을 들려준다.

편지를 쥐어주기도 한다. 선생님하고 지내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게 됐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곡은 30여 곡. 군 법당, 지역 사찰 할 것 없이 부르는 곳 어디든 시간만 되면 기꺼이 찾아가 다. 지친 장병들에게 찬불가, 상송, 팝송 등 장르 구분없이 노래로 기운을 북돋워준다. 장병들의 호응도 열성적이다. 거의 매 주말마다 그는 전국 군법당을 방문한다.

대중음악처럼 듣기 편한 포크송 같은 그의 음악은 단연 불교 음악계에서 독보적이다. 대다수 불교음악이 처지고 느린 곡조로 이루어져 있어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는 바람이 녹아있다.

지난 6월에는 동국대 평생교육원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에서 명상음악을 잠시 선보이기도 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부처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 환희가 일어난다는 호평을 받았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에 그를 응원하는 팬클럽 역시 생겨났다. 산사에 갔다 우연히 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해 가수를 묻고 물어 겨우 팬카페에 오게 되었다는 이, 크고 작은 도량할 것 없이 불러주는 곳 어디나 가는 덕에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아왔다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마르고 닳도록 CD를 들었다며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감사함을 전한다.

####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그의 노래가 사람들 마음을 울렸던 것은 그 속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위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노랫말에는 녹록치 않은 그의 삶이 담겨 있다. 그의 인생사를 듣는 이들은 도대체 몇 생을 살았다고들 한다.

다섯 살이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를 귀에 남겼다. 매일 집 앞 바다로 나가 허염없이 모래사장을 거닐었다. 파도소리가 그의 마음을 달래줬다. 어느 날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닷가를 걷고 있는 스님이 눈에 띄었다. ‘저 스님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걷고 있는 것일까’. 어린 아이 마음에 의문이 들었다. 스님과 아이는 그 후로 종종 마주쳤으나 서로 알은척 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울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여인을 보았다. 다음날 그 여인은 시체가 되어 누워있었다. 파리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죽음이 무서웠다.

엄혹한 세상에 그에게 유일하게 의지가 되던 이는 여동생이었다. 자신을 잘 따랐던 여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줬고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을 버티게 했다. 그러나 그 동생마저 없었다. 동생의 죽음을 잠결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듣고 꼭꼭 울음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하던 말 중 ‘윤회’란 말이 되 나왔다. ‘다시 여동생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었다.

이미 열 살이 되기 전, 그는 죽음이라는 화두를 받아들였다.

#### 만행의 시작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화가 났다. 어쩌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누

파손, 도난 걱정 끝!!

#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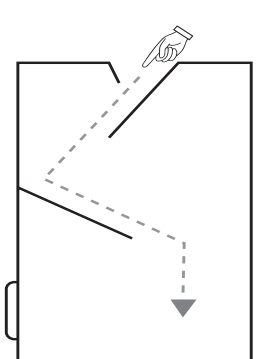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기존 불전함의 투입구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